

오늘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_ 디모데전서 6:1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신년 특집 | 4 | 교사주일 특집 | 11 | 목회칼럼 |
| 3 | 교회소식 | 8 | 어린이주일 | 12 | 공동체소식 |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십여 년 전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 자격증도 있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많이 달랐고 더 힘들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 되었고, 내 말 한 마디가 아이들의 영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고등부 예배 시작 전 둘러앉아 경건회를 갖고 소박한 예배를 드릴 때, 새벽마다 특별한 비법으로 살한다는 달걀을 나누어 주시던, 멀리 갈현동에서 오신다는 선배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평온한 미소와, 잔잔한 격려와, 손끝에 전해지는 삶은 달걀의 식지 않은 따뜻한 온기가 그 무렵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때 교사였던 사람의 드러나지 않은 선생님이었던 그분, 윤명희 권사가 지난 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취제도 진통제도 없이 가시관 쓰신 주님을 묵상하니 감사와 절로 나오더군요. ‘사랑 없이는 결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증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립니다. 예수님 본받아, 사랑으로 무겁고 큰 짐 지고 말없이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드릴 것, 고작 이 꽃밖에 없습니다.

함글함글

섬김의 일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버지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줄함줄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줄함줄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은혜로 받는 기회

매년 어린이날. 다른 사람들이 ‘어디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고민할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우리에게 ‘무지개 잔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안내하는 봉사를 했었고, 개막식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동물옷을 입고 율동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먹을거리, 놀거리로 인해 어린이날은 그저 교회와서 즐기면 되는 날이었다.

‘무지개 잔치’를 하지 못하는 올해 어린이주일에는 유소년실에서 온라인 줌으로 준비한 어린이주일 행사인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중 삼행시를 짓는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있으면 전도사님께서 선택하는 친구가 준비한 삼행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삼행시를 잘 이야기한 친구에게는 상품을 주었다.

참여한 아이들이 모두 열심히 손을 들었다. 우리집 두 아이도 열심히 손을 들었다.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이름도 외쳐봤는데 쉽게 선택되지 않았다. 결국 둘째는 자기들이 선택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눈물을 글썽였다.

속상해하는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선택될 수 있다고 말해주면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되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시 선택되지 않더라도 그건 화내고 속상한 일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결국 열심히 참여한 덕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손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예 참여할 생각이 없거나 한두 번 도전해서 안된다고 포기했으면 아빠로서 속상했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항존직 선거가 생각났다. 자격이 있어서 항존직 임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상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생각이다. 항존직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 중 하나이기에 반드시 소망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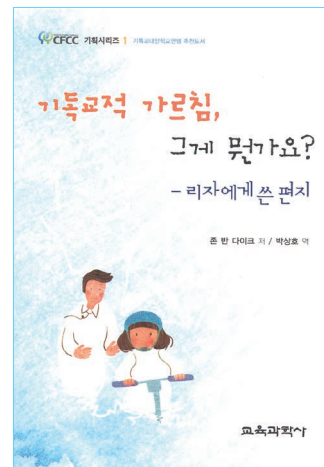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항존직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아이가 삼행시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없이 받는 것이기에 그 부족함을 또한 채워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잠시 모시던 상사분께서 본인은 일부러 항존직을 거절하신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항존직이 되면 못한다는 것이었다. 주(酒)님을 위해 주(主)님을 포기한다는 말로 들렸다.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삼행시를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열심히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며, 모든 성도가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채워주심의 소망을 바라며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도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책 속의 명문장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

- 리자에게 쓴 편지



존 반 다이크 지음, 박상호 옮김,
교육과학사, 2012

•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의지할 때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매일 회개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의 내면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 훈육은 사랑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학생을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어야 한다.

• 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창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죄가 모든 것을 왜곡시켰다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 학생들이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란다... 이 문제 많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소수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업적 재능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계발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독교적 가르침은 들음과 행함 모두를 목표로 해야만 한다. 행함은 들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들음은 올바른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열매맺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수 없고, 성적표의 ‘수’일 수도 없다. 말과 행실 모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능동적이고 기꺼이 해보려는 기질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제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종됨을 연습하기 위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 우리는 (1)전인격의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2)모든 아이는 독특한 은사와 필요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전인격의 아이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 아이의 학업 성취나 행동 문제에 대한 자료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의 독특한 재능을 축하할 수 있고, 그 아이의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들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기회를 가질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 경건의 시간은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심지어 함께 슬퍼하고 울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조차,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와 동행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소식

이번 항존직 선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 교우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거의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선거가 아니라 작년 중직자 추천까지 진행한 후 순연된 2020년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 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 선거는 매우 특별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3년 내지는 5년 간격으로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매년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을 살펴보면 교회 정관 제22조 1항에 시무장로는 총회 헌법의 장로 자격 규정에 합한 자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 교회에 등록된지 10년 이상 된 자 이어야 하며, 2항에 선거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인 자는 장로로 피택 될 수 없고, 3항에 부부는 함께 시무장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은 교회 정관 제 25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수집사, 권사는 총회 헌법 중 안수집사, 권사 자격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지 5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보통 당회의 공천 후 공동의회 선거가 있게 되는데(2단계로 진행), 우리 교회는 당회 공천보다 먼저 ‘중직자 추천제도’를 시

행합니다(3단계로 진행). 중직자 추천제도는 당회원이 아닌 항존직, 사역부서장, 겨자씨인도자 등이 후보자를 먼저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정 하나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고려하고 더 준비해야 할 일들이 가중되지만 교회를 대표하여 섬기시는 분들의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제도를 통해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발전해 나아가길 소망하며 올해도 기대해봅니다.

2020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안내

이번 2020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5/16(주일), 5/23(주일) 양일간 교회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소식당과 대식당을 남/녀 투표장으로 나누어 보다 더 원활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방역수칙을 충분히 지키며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 방역과 대기선 거리두기, 투표장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을 보다 철저히 지켜 무사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목사 / 선거관리위원회

교회 상식
항존직의 역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

교회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안수하여 받는 직분인 항존직이 있다. 항존직은 교인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 받기에 책임이 무거우며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항존직을 신분으로 오해하여 직분을 받는 것을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계급적이거나 수직적이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일 뿐이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장로의 회’란 말이 등장하며 디모데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말씀한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연장자 또는 백성들의 대표들이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종교적 역할을 맡거나 재판이나 행정에 관여하였고, 이런 장로의 역할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까지 이어졌다. 사도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하면서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딤후1:5).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들도 한 명의 장로로서 참여하는 장로들의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참여하는 당회나 노회 또는 총회와 같은 모임이었던 것이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현대 장로교회에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장로는 교회의 목사로,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의 장로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워졌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인 세례교인 14명과 장로 2명을 장립하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정동교회(새문안교회)를 설립했다. 이처럼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부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등 장로교회의 모습을 갖췄다 볼 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하였고 1910년에 ‘조선장로교회신경’(12신조)을 채택하였는데, ‘12신조’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의 표준이었고 목사와 강도사, 장로와 집사를 임직할 때 승인하는 신조로 사용되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더불어 집사직이 있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빌1:1) 하

는데, 이는 초대교회에서 감독(장로)직과 집사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8절~13절에서 집사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집사를 서리집사와 안수집사로 구분한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따르면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받은 자이다. 서리집사는 임기가 1년이며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서리집사를 갱신하여 임명한다. 반면에 안수집사는 교회의 공동의회 선거를 통해 안수를 받은 집사로 만70세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권사는 앞서 말한 장로와 집사와는 달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권고하는 자라는 의미로 권사(exhorter) 직분을 만들었다. 웨슬리는 권사를 훈련하여 설교나 심방 등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역자가 부족한 교회와 목회자를 돕게 하였다. 감리교에서의 권사는 남여 모두 가능하며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로 섬겼다. 한국에 감리교가 들어올 때 감리교의 권사제도도 함께 들어왔는데, 한국 장로교회의 길선주 목사는 감리교의 권사제도를 장로교에 도입하였다. 길선주 목사는 교회 안에서 신앙연조가 있고 덕망이 높은 여성 평신도에게 권사 직분을 주어 교회의 일을 하게 했던 것이다. 장로교회에서 여성은 서리집사라는 직분 이외에 다른 직분을 받을 수 없었기에, 남성은 안수집사, 여성은 권사로 직분이 나뉘어져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교단은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청원을 가결하였다. 이듬해 1995년 각 노회에 안건을 수의하여 51개 노회에서 투표가 진행되어 최종 통과되었고, 1996년 4월 28일 서울노회 안동교회 박숙란이 여성 처음으로 장로안수를 받았다. 반면 같은 장로교회이지만 예장합동·합신·고신 등의 교단은 여성에게 ‘장로’또는 ‘목사’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주님의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5월 16일(주일)과 23일(주일)에 걸쳐 2020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를 비로소 실시한다.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신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윤경수 목사**

교사주일 특집

예수님 본받아 다음 세대 섬기는 사랑의 사역

5월 16일은 청년 주일이자 교사 주일입니다. 사회력에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 데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정한 이름인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자신의 뜻을 쉽게 펼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집현전을 두어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한국의 음률을 반영하여 악보를 정리했으며, 천문을 관찰하고 법전을 정리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운 위대한 스승이기도 했으니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려 온 세상의 스승을 기억하게 한 것일 터입니다.

교회에서 기려야 할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3~15)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 칭하여 신하를 두지 않았고,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여 부하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함은 곧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선생이 되는 것이고,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마태복음 18:12)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주님의교회 교사

주님의교회에는 유아숲에 138명(어와나 17명), 유소년숲에 162명(어와나 39명), 청소년숲에 108명(어와나 13명), EM 아동부에 1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주일

교사주일에는 1~4부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교사들에게 박수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는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에서 장기 근속한 교사들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학교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사들 모임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각 숲에서도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유아숲에서는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통해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온라인으로 감사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유소년숲에서는 3부 예배에 참석한 유소년숲 교사들이 서로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교사특별응원 박스를 드립니다. 청소년숲에서는 예배시간에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감사카드와 함께 온라인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1년 유유청 근속교사 명단

근속연수	숲	이름
20년	유아숲	최정윤 (유아1부)
	유소년숲	김화자 (초등2부) 김광희 (초등2부) 신재은 (초등2부) 조명희 (초등2부)
	청소년숲	이경희 (중등부) 임창남 (어와나)
15년	유아숲	이인숙 (유치1부)
	유소년숲	김화순 (초등2부) 한은희 (초등2부)
	청소년숲	윤기선 (중등부) 김지수 (중등부) 장현주 (중등부) 전숙정 (중등부) 안경희 (고등부) 김유석 (고등부) 유혜림 (고등부)
10년	유아숲	파르비나 (영아부) 김경희 (유아1부) 박지영 (유아1부) 유은하 (유아2부) 이정선 (유아부) 최원정 (유치2부) 김성일 (유치2부) 신성희 (유치2부) 김경순 (아기정원) 김윤희 (아기정원) 김희영 (아기정원) 이유미 (어와나 커비) 허가화 (어와나 커비)
	유소년숲	김애리 (유년1부) 안혜정 (초등2부) 이명림 (초등2부) 조성영 (초등2부)
	청소년숲	손상수 (중등부) 유지은 (중등부) 홍기현 (고등부) 이진 (어와나 트렉)
	장애인부	박종욱 (사랑나무) 신형섭 (사랑나무) 이정선 (사랑나무) 조보연 (사랑나무) 최현정 (사랑나무)

교사주일 특집
서면 인터뷰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듣는다

초등부
신재은 선생님

아이들에게서는 기쁨과 에너지를, 동료 선생님들에게서는 내적 치유를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2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신재은 집사입니다. 현재 아내와 딸 둘과 함께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해당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게 된 까닭이 있다면?

2001년도부터 초등부 교사를 시작했고 현재 21년째입니다. 먼저 아내와 함께 교사를 계속한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고 반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기쁨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총무를 하면서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내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에 있었던 것이 장기근속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역부서도 많은데 특히 교사로 헌신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교사로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가까운 분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은 무엇인지요?

먼저 약속된 시간을 아이들과 성실하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배우신 것이 있는지요?

특별히 준비한 것은 많지 않지만 교사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통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중등부
이경희 선생님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등부에서 3학년 교사를 하고 있는 이경희 집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다른 사역부서도 많은데 특히 교사로 헌신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1년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목사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3가지 직업으로 목사, 의사, 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영을 살리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교회 교사로 헌신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타깝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교사를 오래 하다보니 세대차가 커져서 학생들의 문화와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주안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간의 교제가 적은 것이 아쉽습니다. 예배 후 학원에 가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서로 믿음 안에서 어울릴 시간이 없어 1년 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배만 보고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시험기간이나 학원 때문에 학생들을 주일예배에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타깝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반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나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참여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 프로그램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이나 공과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면하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절기에 맞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교회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배우신 것이 있는지요?

글쎄요, 사범대를 나와서 중등교사로 재직했지만, 교회학교에서는 교사 양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한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작년에 세움학당 1기 수료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나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10년 전인가, 남학생을 담당했었는데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 예배 후 공과도 안하고 집에 가고, 떠들고 힘들게 했던 학생이 몇 년 후 대학생이 되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중3 여학생을 담당했었는데, 매주 지각하고 결석해서 주일아침마다 전화해서 깨워주면 예배드리던 학생이 고등부에 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서, 후배 교사 여러분, 또는 새로 교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권유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갈수록 주일학교 교사를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마도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서인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재미와 보람을 (즐겁게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주일 특집
서면 인터뷰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드리지요. 교사들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회 사역중에 미래의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학교가 가장 중요

고등부
김유석 선생님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기도할 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교사로 사역 중인 김유석 안수집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해당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게 된 까닭이 있다면?

주님의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16년 넘게 고등부 교사로 사역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사 직분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과 은혜로 주께 인도하는 사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출장 중 주일이 포함된 세 번만 아이들과 만나지 못했고, 그 외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일 교사 직분을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사역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과 삶의 온전함에 대한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역부서도 많은데 특히 교사로 헌신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늦은 미국 유학으로 부르셔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 주시고 은혜로 믿게 하셨습니다. 유학 중 권오승 은퇴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귀국하면 주님의교회로 오라하셔서 2005년부터 주님의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고등부 교사가 부족하다고 권하셨고 기도 후 교사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저를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고등부 교사를 하냐고 물으시면서 다른 사역을 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시지 않아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등부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과 기도를 나누고 제게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니만큼 그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배우신 것이 있는지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 공부에 집중했고, 제에게 붙여 주신 학생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마냥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중등부는 아니지만 제가 다운증후군 아들을 키우고 있다보니, 사랑나무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나무 친구들이 예배도 드리지만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학교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취업에 관한 지원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과 부대끼는 사역이라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의 중압감이나 가족, 친구 등 민감한 시기의 다양한 문제로 믿음의 시험을 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깝고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함에 기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보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나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등부 졸업 후 재수하는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청년부 예배가 불편하여 성인 예배를 보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재수를 결정한 친구들에게 마음 편히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별도 예배를 만들자고 기도했고, 2016년에 처음으로 비전샘이라는 공식적인 재수생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 3년 동안 말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서, 후배 교사 여러분, 또는 새로 교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권유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다면 먼저 교사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보다 큰 약속이 있는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린 영혼들을 대하는 사역으로 영적 민감함과 베푸는 마음의 넉넉함을 준비하고 쉬는 주일이 없는 성실함을 쟁겨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20년에는 유튜브를 통해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매주 비대면 예배와 겨울 및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고, 2021년에는 줌예배와 함께 예배후 줌을 통해 교사와 반 학생들이 함께 하는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많은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고 크리스천 청소년이 급감하는 현실은 이 나라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다행히 주님의교회는 아직까지 주일학교가 건재합니다. 하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시길 간구 드립니다.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와나
이정우 선생님

여자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날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어와나 티엔티 게임디렉터 이정우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해당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게 된 까닭이 있다면?

2004년 11월 교사대학을 통해 어와나 교사를 지원했고, 2005년부터 어와나 교사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어와나 교사를 통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어와나 클럽활동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동역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역부서도 많은데 특히 교사로 헌신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연애 시절 여자친구의 권유로 어와나 교사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어와나 클럽활동을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은혜(결혼?)에 감사함으로 교사로 계속 섬기고 있으며, 2007년 시카고에 있는 어와나 미국 본부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6~8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곤 하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기에 클럽활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이나 저에게도 은혜로운 순간이었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배우신 것이 있는지요?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기 위해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와나 교사를 잘하기 위해 어와나 강사교육을 이수하고, 어와나 교육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움학당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과 부대끼는 사역이라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나무
이정선 선생님

날개 없는 천사들 파이팅!

사랑나무 출발부터 지금까지 날개 없는 천사들을 섬기면서 울고 웃고 지나온 세월 속에 무럭무럭 성장하는 친구들을 이제는 줌으로 만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고, 줌영상 속에서 반가워하는 친구들 속히 교제하

주일학교 시절 교회에서 뛰고 장난치면 권사님, 장로님들께 항상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와나 클럽활동 시간엔 게임을 하면서 뛰고, 던지고, 응원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지 않고 비난하는 아이들이 있어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혼내기도 했고 벌을 주기도 했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아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멋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나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어와나 교사로 같이 봉사하는 동역자 되었습니다. 어와나 활동을 오래동안 했던 아이들이 교사가 되면 더 열심히 지도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이 활동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해서인지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와나 활동을 했던 많은 아이들이 어와나 교사가 되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서, 후배 교사 여러분, 또는 새로 교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권유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때는 12월이 되면 항상 ‘내년에도 교사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고, 전도사님이 물으셔도 고민, 안 물으셔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사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고민스러웠는데, 내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암송은 영상으로 찍어 체크를 받습니다. 한달에 한번 줌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간 5층에 모여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와나 클럽 활동은 토요일에 제자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일 특성상 매년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어와나 단복을 입을 많은 아이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12년의 장년이 되었답니다. 주님의교회 사랑나무 친구들 파이팅!

어린이주일
소식

5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쑥쑥 자라납니다

푸르른 5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몸 쑥쑥, 마음 쑥쑥 자라갑니다. 5월 2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유아숲과 유소년숲에서는 가정으로 <키즈박스>와 <무지개 박스>를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올해도 어린이주일을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지 못함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회의 주일 풍경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글함글

유아숲

박스 박스, 키즈박스

유아숲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는 하임 아기부, 하늘씨앗 영아부, 싹트네 유아부, 담쟁이 유치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가득 담아 키즈박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키즈박스에는 어린이주일 선물인 유아숲 수건과 맛있는 간식,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기증 받은 마스크가 담겼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쉬움을 달래며 유아숲 어린이주일 키즈박스가 각 가정에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유소년숲

무지개 프로젝트

유소년숲에서는 언택트 상황에서의 유소년숲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유소년숲 보이는 라디오(유보라)”는 5월 2일(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8명의 유소년숲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유소년숲 보이는 라디오”는 ‘온라인 성경퀴즈대회’와 ‘삼행시 짓기’, ‘네 마음을 보여 ZOOM’과 ‘복음제시 샌드아트 공연’ 그리고 새 친구를 환영하는 ‘온라인 새 친구 웰컴’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간증

고 윤명희 권사님의 '샬롬'을 나눕니다

아래 글은 5월6일 큐티로 나눈 글입니다. 내용 중에 고 윤명희 권사님의 간증이 있어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제목 : 전쟁은 주께 속했네

말씀 : 신명기 3:1-11

오늘 큐티의 제목은 '전쟁은 주께 속했네'입니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길흉화복뿐 아니라 생로병사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의교회에서 보낸 문자 두 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모친상을 알리는 문자였고 하나는 저와 고등부 교사를 함께 했던 윤명희 권사님의 소천을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기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주고받았을 때 뇌에 작은 종양이 생겨 시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잘 회복되어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과 고등부를 함께 섬기면서 함글함글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귀한 간증을 피택동기들과도 나누고 싶어 큐티 대신 전합니다.

집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올려요 제가 지난주에 3박 4일 입원해서 집중 검사 중 뇌에 4mm의 종양이 발견되어 감마나이프라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때의 상황을 잠시 글로 적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전했는데 늦게라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해주시는 귀한 집사님이시니까요.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조금 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오늘 퇴원해요. 생각보다 힘든 과정을 거쳐 시술을 마치니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면류관 묵상은 저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더군요. 머리에 압박 쇠를 끼우고 3시간 후에 검사를 50분 했어요 마취주사 놓을 때 어찌나 아프던지요. 틀을 고정할 때도 또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러나 마취제도 진통제도 없이 가시관 쓰신 주님을 묵상하니 감사가 절로 나오더군요. '사랑 없이는 결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면서 제가 머리로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되더군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저 머리만으로 회개할 뻔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더니 이것도 포함되네요. 예레미야가 어깨에 쇠를 끼었을 때 성경에서는 한 줄로 끝나지만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 갑작스러운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쓰러지셨을 때 토하시고 설사하시고 난리였어요. 축늘어진 어머니를 샤워실에 가서 남편이 옷을 벗기고 씻기는데 어머니께 손가락 하나 꿈쩍을 안 하셔서 '좀 도와주시지' 속으로 그랬는데 정작 내가 당해보니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이런 상태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마나이프 시술은 준비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졌는데 저의 경우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1주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덕분에 잘 지내리라 여겨 집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샬롬!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에게나 믿는 자 모두에게 고인의 마지막 인사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인호 안수집사

독자 시편

연리목 2

처음부터 곁이었다 희고 어린
뿌리였을 때 처음으로 바라본 하늘

서로 곁이 되어 곁을 내어주는
곁이 곁을 보듬고 부축하는 그늘

한 발췌 비켜서 거울이 되는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비추는
바람도 없이 간절한
하늘의 떨림

이희숙 권사



목사안수 소감과 다짐

다음 세대 세우는 일, 한국교회 세우는 일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20일, 194회기 평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서예림 목사입니다. 현재 뷰티풀퍼어런팅센터(BPC)와 유아숲 영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보다 교회를 좋아했고, 학교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교회에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했던 저는 교회 문화 속에서 신체와 신앙 모두 함께 자라났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미취학부서를 담당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곧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신앙 교육이 아이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가정까지 미쳐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신앙 교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으로 위기를 겪는 오늘 날 상처 많은 가정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고, 말씀과 신앙 안에서 화해, 연합시킴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신앙 전수가 유연해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언제나 교회와 가정과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예림 목사

목사안수 소감과 다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올해 봄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유준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에 이어 목사안수까지의 여정을 보내게 되어 기쁜 마음과 감사함,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교차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에 부끄러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진심 어린 염려가 섞인 축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바른 목회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현시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조류 앞에 몸도 마음도 흔들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할 일이 많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젖으며 걸어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기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감당하려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의 길에 흔들림과 젖음이 항상 함께하며, 곳곳하게 잘 버티며,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목사

함줄함줄 서평

<릭 워렌과 함께하는 개인 성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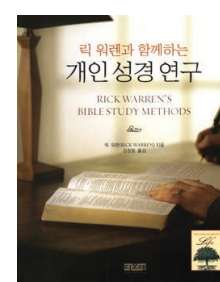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릭 워렌 목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발간했다. 바로 <릭 워렌과 함께 하는 개인 성경 연구>이다.

릭 워렌 목사는 책의 서론에서 성경 연구는 경건의 시간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경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성경 연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말투, 행동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4~17>

릭 워렌 목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교훈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며, 책망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함을 어떻게 그 길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의로 교육하는 것은 그 길에 계속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1b~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 22:29>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잘못된 교리 혹은 잘못에 빠지는 기본적인 이유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경건의 시간과 더불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동기가 없어서, 또는 게을러서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성경 연구는 시간, 노력, 집중력, 인내심이 요구되는 힘든 작업이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진리는 말씀의 표면에 있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연구할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방법을 모른다면 릭 워렌 목사가 제시하는 성경 연구 방법을 따라해 볼 수 있겠다. 바로 <릭 워렌과 함께 하는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이다. 함줄함줄

목회 칼럼

이단주의보 -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교회는 ‘안아주고 북돋아주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고,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속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 중 하나는 신천지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단 종파인 신천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교단에 투신하게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신흥종교 출현은 사회 혼란과 연결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집단의 위기가 있는 경우 신흥종교는 그 틈을 이용해 사회에 침투합니다. 신천지는 특히 젊은 층에 접근해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합니다. 영어를 가르쳐주거나,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교양 인문 강좌로의 초대 등을 구실 삼아 의심 없이 따라나서게 합니다. 요즘은 심리 상담을 구실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천지라는 조직은 현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불안, 좌절 등을 위로하며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신천지에 빠지고, 그 집단에서 헤어날 수 없는 몇 가지 요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 줍니다. 신흥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경험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이들에게 수용의 공간을 제공하는 신흥종교에서 안식과 위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14만 4천 명의 용사가 된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든든한 자신감이 형성됩니다. 현실 속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틀을 신천지는 교묘하게 제공해 줍니다. 매일 기도해 주고, 관심을 보여 주는 소집단을 통해 따뜻한 수용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왜곡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사회에서의 삶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초스피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격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되어가는 시대에서 차별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만 뒤쳐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방어기제를 발동하게 하는데 그중 하나는 강박적 사고를 경험하며 경직된 사고에 머물고 그 사고를 고집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양태는 자신보다 큰 인물과 권위, 혹은 힘에 의존해 현재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메시아인 교주에게 자신들의 불완전한 미래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자신들의 현재 불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흥종교의 교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신과 같은 존재로 우상시 됩니다. 교주는 자기애적 성향이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은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과대망상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특징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에 둔감한 공감능력의 결핍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중 신천지 이슈에서도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자기애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불안 심리를 다루기 위해 의존하려는 성향이 필요하고,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주는 자기를 추앙해주는 추종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병리적 욕구가 결합해 폐쇄적인 신흥종교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 그릇된 신앙적 우월감입니다. 신천지 교인 중에는 기존에 교회를 다녔거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동방의 새 예루살렘 성도가 된다는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7개월 동안 집중된 성경공부를 통해서 기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회복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복음이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철저한 교리에 입각한 신흥종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신천지 교회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주장과 그들 나름대로 명쾌하게 풀어가는 비유 풀이, 짝맞추기 식 성경해석들에 빠져서 기존 교회가 제시하지 못하는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 안에서 소속감, 안정감, 우월감을 가집니다. 더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 교회에서는 현대 한국인들의 치전 마음과 불안한 정서를 안아줄 수 있는 안전한 영적, 심리적 공간을 제공해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아주고 북돋아 주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였다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어, 성도들이 돌봄을 느끼고 건강하게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안아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가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역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대혁 목사

어버이주일 선물 전달



5월 9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교회에서는 70세 넘는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증정했다. 올해의 어버이날 선물은 쿠키세트였으며 예년에는 450개를 준비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어든 예배 인원 에 따라 200개가 준비되어, 70세 넘는 어르신 계신 가정 당 1개씩 증정되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함글함글 유유청청 지상 백일장

함글함글에서는 주님의교회 유유청청을 대상으로 지상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시대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글을 가까이 하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펼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꿈나무, 유유청청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부문

유아숲 : 시화(동시 + 그림)
유소년숲 : 동시, 산문
청소년숲 : 시, 산문, 간증, 콩트
청년숲 : 시, 수필, 간증, 콩트

제목

유아숲, 유소년숲 : 나무, 거짓말 중 하나
청소년숲, 청년숲 : 5월, 그림자 중 하나

마감과 제출

2021년 5월 31일까지, 제목에 <함글함글 유유청청 지상 백일장 응모>라고 쓰고, 작품을 첨부한 후 연락처와 함께 hamletter@daum.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보출판부

모십니다

재택의 시대, 정말 가치 있는 재택 사역!

홍보출판부에서는 <함글함글>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출판물을 만듭니다. 저희는 교회 역사의 소중한 자료인 <함글함글>을 홈페이지에 창간호부터 수록하는 일과 함께, 모든 기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검색을 통해 찾고 싶은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함글함글>의 PDF 이미지를 메일로 받으신 후 데스크에서 워드 파일로 전환해서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재택의 시대, 재택으로 가능하며 틈틈히 주님의교회 역사 기록을 정리하는 이 소중한 사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함글함글 디지털화 사역 지원”제목과 함께 연락처와 성함을 보내주세요!

홍보출판부

교회 일정

5/16(주일) 청년주일 / 교사주일
5/23(주일) 성령강림주일
5/30(주일) 삼위일체주일

알립니다

1. 2020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안내

일시 : 5/16, 23(주일) 오전 8:00 ~ 오후 3:00

선출위원 : 장로(10명), 안수집사(20명), 권사(20명)

2. 주님의교회 좋은 이웃되기 ‘피로 회복’

일시 : 5/30(주일) 오전 8:30 ~ 오후 4:30

장소 : 주님의교회 본당 앞

신청 : 5/23(주일), 30(주일) 1층 로비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